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돕는다

전주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전주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나섰다.

전주시보건소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및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기존 산부인과와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산모들의 산후 회복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 지원 대상에 이탄동(미숙아)을 포함해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

세포 동결·보존 비용(여성 200만 원, 남성 3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한해 동안 시민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출산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4월 처음 시작해 9개월간 1171명에게 검사비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20세~49세 남녀 모두에게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인당 최대 3회(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난 2023년까지 소득 기준에 의해 선별 지원하던 고위

험 임신부 의료비와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관리비, 선천성 난청검사 의료비(보청기 포함)에 대해 지난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시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총 608명이 지원을 받았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 1594명의 산후 관리를 지원했으며, 산모 1510명에게 산후 도우미를 지원했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영유아 1750명을 지원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을 통해 492명의 영유아를 지원했다.

시는 또 정부의 난임 지원 강화 방침에 발맞춰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크게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전체 난임부부 지원 확대 △부부당 25회 난임시술비 지원에서 출산당 25회 지원으로 확대 △나이에 따른 시술비 차등 지원(여성 나이 45세 미만·최대 110만 원, 45세 이상·최대 90만 원)에서 나이 관계없이 최대 110만 원 지원 등이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1653건이었던 시술비 지원 건수가 지난해 29% 증가한 2133건(실인원 89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58명이 임신에 성공하여 시술 횟수 대비 16.7%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난임 시술 전 필수적으로 받는 자궁 및 난관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난임진단검사비용, 최대 30만 원, 부부당 1회)도 지난해 처음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의 검사비를 260명에게 지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모집

수도권 소재 진학 전주·완주 출신 대학생 43명

인재 양성의 요람인 전주시 서울 장학숙 전주풍남학사(소장 장은경)가 2025년도 입사생을 모집한다.

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전주시와 완주군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신규입사생 43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정규대학에 진학한 전주시 또는 완주군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로, 보호자가 공고일(1월 2일) 기준 1년 이상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13일 전주시 누리집과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사생 선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풍남학사는 지하 1층~지상 3층의 4개 동으로 1일 3식을 제공하는 식당과 체육관, 도서관,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인 1실로 책상과 침대, 옷장,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기 등이 완비돼 있다. 전주풍남학사는 입사 등록비 7만 원과 매월 15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면 한 학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농업인과 소통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2월까지 농업인·품목별 단체 등과 현안 소통 간담회 진행

전주시가 지역 농업 발전과 '강한 경제' 전주 구현을 위해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7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 등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하여 농촌지도자연합회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날 농촌지도자연합회를 시작으로 오는 2월 말까지 품목별 농업인과 유관 관련 단체,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7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 등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해 농촌지도자연합회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전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

는 전주시 7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농업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 농업기술과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와 개발·제안 등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8개 품목농업인 연구회에서는 새로운 품종 도입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과학영농기술 교육 등 정보 공유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색 미래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겠다"면서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같이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블랙아이스' 각별한 주의 당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겨울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위의 '블랙아이스(Black Ice)'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블랙아이스는 한파로 인해 도로 표면에 형성된 얇고 투명한 얼음층으로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리, 터널, 산모퉁이 음지, 곡선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블랙아이스 발생 확률이 높아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 중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예보와 교통정보 확인 △차량 타이어 상태 및 브레이크 상태 수시 확인 △급속운행 및 차량 간 안전거리 유지 △급출발·급가속·급제동 삼가 등이다.

또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주의도 필요한데 △보행시 보폭을 평소보다 줄이고 굽이 낮은 신발 착용하기 △오줌머리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



블랙아이스 주의 당부 소상칭 키드뉴스

폰을 보면서 걸지 않기 △순에 물건을 가득 들고 다니지 않기 △응답진 곳 피하기 등이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블랙아이스는 그 특성상 순간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운전 경험이 부족한 초보운전자나 차량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겨울철 도로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 개강식 개최

전주시가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나갈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에 나섰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지난 6일) 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전주인재육성재단 5층 공동체 공유마당에서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 제3기(2025년 1기)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글로벌 마인드와 애환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6개월 동안 화와 중심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글로벌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한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와 재단은 공개모집을 거쳐 총 10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앞으로 △어학 집중코스와 자체평가, 우리 지



영 탐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실전 영어 체험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대학 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약 2주 과정의 국외연수 △개인 활

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개월 과정의 활동 보고 시간을 갖게 된다.

(재)전주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이번 영어 능력 강화사업은 기존 해외연수와는 달리 국내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강화한 후 향상된 언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단기 해외연수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며 "3기 장학생 모두가 6개월 과정을 잘 수료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창조적 역량을 갖춘 미래 핵심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제11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 겨울,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

개 장 _ 2024. 12. 28.(토) ~ 2025. 02. 09.(일)
(임시개장 2024.12.25~ 12.31/ * 개장초기에는 날씨 사정으로 휴장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연락주세요 T.063-635-0301)

장 소 _ 남원 바래봉일원 (운봉읍 바래봉길 214)

주요행사 _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동산, 눈꽃등반

주관_(사)운봉애향회 후원_ 남원시·운봉읍·운봉읍사회봉사단체